

광양 명당3지구 산업, 분양기지개



광양시는 지난 26일 광양국가산단 내 굴껍데기를 재활용하는 ㈜에스에프씨(SFC)가 분양 계약 완료 후 명당 3지구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에스에프씨는 해안가에 방치된 굴껍데기를 이용한 액상소석회 제조 공장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서부발전이 개발한 신기술이전을 받은 사업이다.

업체는 제조원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금년 8월부터 제품생산을 목표로 착공식을 열었다.

국내 굴껍데기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30만톤으로 대부분 통영·여수 등 남해안에서 발생되나 비료와 종자용 등으로 일부 재활용되고 10만톤 이상 해안가 등에 방치돼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

에스에프씨는 이를 재료로 활용해 연간 약 14만톤의 환경정화과 제품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고용인력 21명의 신규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는 지난해 8월 준공된 광양국가산단 내에 위치하며

‘굴껍데기 재활용 기술 접목’ (주)에스에프씨(SFC)
분양 계약 후 착공식...8월부터 제품 생산 목표
환경정화·제품생산...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국도 2호선과 국도 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 IC에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포스코광양제철소와 제철관련 연관 국가산업단지 및 광양항이 위치하는 등 교통망과 접근성이 좋아 투자에 있어 최고의 입지 여건을 자랑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철강업 회복과 사업을 계획하는 투자자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는 현재 분양중이며 산업시설용지 24필지, 지원시설 용지 14필지, 주차장시설용지 3필지가 분양 대상이다.

임주대상 업종은 △산업시설용지 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H5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전기·가

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복합업종(C23, C24, C25, C29)이며, 지원시설용지는 △제1.2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육외골프연습장 제외), 창고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만 해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차량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등)이 가능하다.

최대식 산단과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명당3지구 산단에 분양 계약과 착공식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업장이 번창할지 기대한다”며, “동 산단에 많은 기업체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 사업 성공은 물론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업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순천 ‘팔마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됐다

문화재청, 보물 제2122호 지정

청림의 상징 ‘순천 팔마비’가 국가문화재 지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보물 제212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8일 보물지정을 예고하고 30일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지정을 확정했다.

순천 팔마비는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이후에 승평부사(昇平府使) 최석(崔碩)의 청림함을 기리기 위해 승평부(순천)에 건립한 비석이다.

13세기에 처음 건립되었다는 역사적 유래가 있고, 1617년에 순천부사 이수광이 중건한 비의 실물이 현전하여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팔마비의 주인공인 최석을 청림한 지방관의 표상으로 삼아 현재까지 이어온다는 점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순천=김승호기자



순천시는 팔마비에 대한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4월 중 보물 지정서 전달, 기관단체장·시민 청렴 선서, 팔마비와 팔마정신에 대한 역사 기록 전시회 등 팔마비 보물 축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석 순천시장은 “팔마비의 보물 승격은 순천시민들이 팔마비에 갖는 청렴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결과이고, 팔마정신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팔마비의 청렴정신이 현대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군, ‘어촌 유희시설 활용 海드림’ 공모사업 선정

6억원 확보...금산면 익금마을·서촌마을 최종 선정



익금마을 공동마을작업소→(변경후)마을카페 특산물 판매장



서촌마을 폐교→(변경후)귀어인 살아보기 체험장·숙소

고흥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1년 어촌 유희시설 활용 海드림’ 공모사업에 금산면 익금마을과 서촌마을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본 사업은 어촌의 유희 공동시설

을 어촌특화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1년 어촌 유희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으로 전국

3개소를 선정 발표 하였는데, 고흥군이 2개소(금산면 익금, 서촌마을)가 선정되어 6억원(리모델링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금산면 익금마을의 마을공동작업소는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로 운영하는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과 카페로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산면 서촌마을은 초등학교 폐교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귀어인의 살아보기 체험장과 더불어 조기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후에도 대상지 발굴 및 선정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김택영기자

보성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최종 확정

보성군은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4개 지구 (1,215필지/ 962,299㎡)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 확정된 사업지구는 복내 반석 2지구, 복내 용전지구, 회천 회령1·2지구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도 상승된다”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개 지구 3,662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2020년 사업지구인 복내 동교1·2지구(565필지)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 경계와 토지의 현황경계가 불일치한 불분합 지역을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보성=김복순기자

여수시 삼산면 유촌항, 해수부 어촌뉴딜 리빙랩 대상지 선정

전문가 상주 현안 문제 해결

여수시가 해양수산부 ‘2021년 어촌 뉴딜300 리빙랩(Living Lab) 시범사업’에 삼산면 유촌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리빙랩 시범사업은 리빙랩 기관이 전문가 등과 지역사회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특히 갈등관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 지연 요소에 적극 개입하고 어촌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함께 해결하면서 어촌혁신 모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삼산면 유촌항은 특화경관 조성에 따른 자부담과 어업인 휴게소 부지매입 등이 현안문제로 제시된 만큼 리빙랩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올해 전국 60개 어촌뉴딜 사업지 중 여수시 유촌항, 태안군 마검포항, 울산 북구 우가

항 등 3곳을 리빙랩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총 4년간 3단계로 추진되며, 1차년도는 ‘탐색단계’로 현안문제를 진단·분석하고, 2·3년차는 ‘실행 단계’로 사업의 실행과 관리·운영조직 출범, 예비운영이 이뤄지며, 4년차는 ‘평가 단계’로 사업성과 도출 및 백서 발간을 통해 모델을 정립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리빙랩은 최근 스마트시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기법으로 쓰이는 만큼, 실질적인 어촌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산면 동도항(유촌항·죽촌항)은 76억 원을 투입해 대합실 조성, 선착장 매립, 방파제 확폭 및 연장이 이뤄지고, 어선수리 및 어구보관 창고, 어류 공동작업장 등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된다.

여수=오상호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